

시인의 마을



조팝나무 꽃이다

눈보다도 하얀 조팝나무 꽃이다  
개나리 울고불고 땅만 본다  
벚꽃도, 목련도 하늘만 바라본다  
사월은 너의 세상이다  
하얗게 파란 구름보다 더 희게

- 박여범, '조팝나무 꽃이다' 전문

시들을 담다

누군가가 말했다. 사월은 잔인한 달이다. 그렇다고 달이 반박할 멋진 단어나 문장이 떠오르지 않는다. 목련꽃이 피는, 벚꽃이 피는, 개나리가 피는 사월이 너무나 기다려지는 것은 너만의 욕심일까? 그렇게 목련과 벚꽃이 지금껏 눈을 가득 채웠다. 그러나 이제는 다양한 봄꽃이 눈에 들어온다. 나이와 더불어 여유가 생긴 것이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이 눈에 들어온다. 이것은 저마다의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이유가 아니겠는가. 그마저도 없는 빈 인생이라면 너무나 초라하고 서운하지 않겠는가? 길을 걸어가 는 사람의 뒤통이다. 하여(何如), 꽃을 눈에 담은 것도 보는 사람의 뒤통이다.



박여범

용북중학교 · 시인 문학박사 · 문학평론가

독자재언

봄철 졸음운전 교통사고 주의

봄철 날씨가 따뜻해져 운전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졸음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순간의 졸음운전은 음주운전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졸릴 때 운전을 하면 평소보다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며 운전자가 졸음을 느끼는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특히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반드시 휴게소에서 잠깐이라도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한꺼번에 장시간 휴식을 하는 것

보다 잠깐이라도 자주 휴식을 취하는 것이 피로를 줄이는 방법이다. 휴식을 취할 때는 가벼운 체조로 몸을 풀어주고 자동차를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휴게소에서 식사 후 운전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하고 여유있게 운전을 하는 것이 식후 졸음운전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혼자 운전을 할 경우 경쾌한 음악을 듣거나 껌을 씹고 창문을 열어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순환시키는 방법이 있으며 동승자가 있는 경우 교대로 운전을 하거나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봄철 졸음운전으로 인해 자신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까지 망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운전을 해야 할 것이다. 김생기고청영철서교통관리계경감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러시아군에 살해된 부친 장례 치르는 부처 주민



1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 외곽 부처에서 한 남성이 부처 방위군으로 활동 중 러시아군에 살해된 부친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다.

사설

새만금 새로운 전략사업

새만금 사업이 첫 삽을 뜬 지 30년이 됐다. 지난 1991년 11월 28일 새만금 간척사업이 시작됐다. 그동안 새만금 사업은 수많은 부침을 겪었다. 새만금 사업은 1999년 새만금 환경 문제와 관련해 민관 공동 조사를 수용하면서 2년 간 공사가 중단됐다. 환경운동연합의 헌법소원으로 시작된 새만금 관련 소송은 2001년부터 2006년 3월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5년간 이어졌다. 지금까지 새만금 기반시설 가운데 유일하게 완공된 것은 새만금 동서도로다. 새만금 신항만은 2025년, 신공항은 2028년에야 완공된다. 올해부터는 수변도시 조성과 관광 명소화 사업 등 2단계 사업이 본격화 된다. 그러나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지난 30년 동안의 지 지부진한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새만금 기본 계획 변경으로 공공주도 사업 비중이 늘었다. 그러나 여전히 민간에서 투자

받아야 할 사업비가 전체의 40%가 넘는 9조 7천억 원에 달한다. 전라북도가 국내의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용차와 탄소 소재, 그린수소 중심의 산업 벨트 조성과 융복합 등이 포스트 새만금 사업으로 꼽힌다. 지식 정보와 바이오 생명 같은 미래지향적 친환경 산업에 대한 수요도 급증한 만큼 지역 맞춤형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 국내 외 산업·경제 흐름을 두루 파악하고 있는 외부 전문가 집단, 경제계 등이 참여한 논의의 기구도 절실하다. 새로운 전략 사업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역에 보탬을 마련하고 명분을 쌓는 일도 필요하다. 앞으로 남은 과제와 주목할 사업들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전라북도와 정치권 그리고 국민 모두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새만금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비상할 '글로벌 명품 새만금'을 만들어야 할 때이다.

은행 사칭 불법스팸

은행을 사칭한 불법 스팸이 급증하고 있다. 불법 스팸은 시중 은행에서 취급하는 대출 상품을 가장하여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고령층 등 취약 계층에게 전화 금융사기, 문자사기 등 금융범죄를 저지르는 수법이다. 이들은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 신청 마감일 임박한 것처럼 말한다. 올해 상반기 접수된 의심 신고만 46만 건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정부가 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내놨다. 스팸 발송자가 대량의 전화 회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유선·인터넷 전화 가입 회선수를 개인은 5개, 법인은 종사자 수로 제한한다. 불법 스팸으로 확인되면 적발된 번호뿐만 아니라 보유한 모든 전화번호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불법 스팸 발송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

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스팸 문자는 70% 이상이 KT를 포함해 상위 3개 문자 발송 서비스 사업자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 스팸을 걸러내기 위한 이들 업체의 내부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스팸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새로 늘어나는 스팸을 감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악성 스팸 발송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등 스팸 메시지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국제 불법 스팸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휴대전화 불법 스팸 신고 및 탐지량은 지난해 하반기 1.717만 건에서 올해 상반기 1.966만 건으로 15% 증가했다.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2금융권으로 사칭 문자가 확대될 수 있다. 제2금융권의 공식 전화번호까지 통신사 스팸 차단 시스템에 등록하기 바란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노력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